

1. 댕구의 장

Yamakavaggo

Pair

1. 모든 현상의 경험은

마음이 앞서가며 일어나

마음이 으뜸이고 마음이 만든 것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Manopubbaṅgamā dhammā manosetṭhā manomayā,
Manasā ce paduṭṭhena, bhāsati vā karoti vā
Tato naṃ dukkham anveti, cakkamva vahato padaṃ.*

Mind precedes all mental states.

Mind is their chief; they are all mind-wrought.

If with an impure mind a person speaks or acts

suffering follows him

like the wheel that follows the foot of the ox.

* 법(法)으로 번역된 담마(dhamma)는 진리, 가르침, 현상, 요소, 마음의 상태/경험, 인식의 대상, 속성, 올바름, 정의, 종교적 가르침, 10“He abused me, he struck me, he overpowered me, he robbed me.” Those who harbor such thoughts do not still their hatred.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

2. 모든 현상의 경험은
마음이 앞서가며 일어나
마음이 으뜸이고 마음이 만든 것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Manopubbaṅgamā dhammā, manośeṭṭhā manomayā,
Manasā ce pasannena, bhāsati vā karoti vā
Tato naṃ sukhamanveti, chāyāva anapāyinī.*

Mind precedes all mental states.
Mind is their chief; they are all mindwrought.
If with a pure mind a person speaks or acts
happiness follows him
like his never-departing shadow.

3.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고
나를 정복하여 내 것을 빼앗았다'
이같은 원망에 묶인 사람들,
그들의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Akkocchi maṃ avadhi maṃ ajini maṃ ahāsi me
Ye taṃ upanayhanti veraṃ tesaṃ na sammati.*

“He abused me, he struck me,
he overpowered me, he robbed me.”
Those who harbor such thoughts
do not still their hatred.

4.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고
나를 정복하여 내 것을 빼앗았다'
이같은 원망에 묶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원한은 사라진다.

*Akkocchi maṃ avadhi maṃ ajini maṃ ahāsi me
Ye taṃ nupanayhanti veraṃ tesūpasammati.*

“He abused me, he struck me,
he overpowered me, he robbed me.”
Those who do not harbor such thoughts
still their hatred.

5. 원한은 원한을 갚는 것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 원한이 사라지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Na hi verena verāni sammant' idha kudācana
Averena ca sammanti esa dhammo sanantano.*

Hatred is never appeased

by hatred in this world.

By non-hatred alone is hatred appeased.

This is a law eternal.

6.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잘 안다면
이로써 모든 다툼이 그칠 것이다.

*Pare ca na vijānanti mayamettha yamāse
Ye ca tattha vijānanti tato sammanti medhagā.*

There are those who do not realize that
one day we all must die.
But those who do realize this
settle their quarrels.

7. 아름다운 것을 보며 감각을 제어하지 않고
먹는 양을 모르고 게을러 노력하지 않는 자.
마라는 진정 그를 정복한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indriyesu asaṃvutaṃ
Bhojanamhi cāmattaññuṃ kusītaṃ hīnavīriyaṃ
Taṃ ve pasahati māro vāto rukkhaṃ va dubbalaṃ.*

Just as a storm throws down a weak tree,
so does Mara overpower the man
who lives for the pursuit of pleasures,
who is uncontrolled in his senses,
immoderate in eating, indolent, and dissipated.

* 마라는 고타마 샛타르타의 깨달음의 성취를 막으려 한 악한 신으로 그려진다. 마라 말 그대로의 의미는 '살인자' 혹은 '파괴자'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서 마음 속 번뇌, 죽음, 혹은 윤회의 끝없는 고통을 뜻한다.

8. 아름답지 않을 것을 보며 감각을 제어하고
먹는 양을 알고 믿음으로 단단히 노력하는 이.
마라는 그를 진정 정복하지 못한다,
바람이 바위산을 흔들지 못하듯.

*Asubhānupassiṃ viharantaṃ indriyesu susaṃvutaṃ
Bhojanamhi ca mattaññuṃ saddhaṃ āraddhavīriyaṃ
Taṃ ve nappasahati māro vāto selaṃ va pabbataṃ.*

Just as a storm cannot prevail against a rocky mountain,
so Mara can never overpower the man
who lives meditating on the impurities,
who is controlled in his senses, moderate in eating,
and filled with faith and earnest effort.

9. 더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누군가는 가사를 입을 것이다.
절제와 진실이 없는 자,
그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Anikkasāvo kāsāvaṃ yo vatthaṃ paridahissati
Apeto damasaccena na so kāsāvamarahati.*

Whoever being depraved,
devoid of self-control and truthfulness,
should don the monk's yellow robe,
he surely is not worthy of the robe.

* 가사는 불교의 출가자들이 입는 옷의 한 가지로, 버려진 옷의 천조각을 붙여서 만든 것이다.

10. 그러나 더러움을 토해 버리고
누군가는 계행 가운데 잘 집중한다.
절제와 진실을 갖춘 이,
그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Yo ca vantakasāv' assa sīlesu susamāhito
Upeto damasaccena sa ve kāsāvamarahati.*

But whoever is purged of depravity,
well-established in virtues
and filled with self-control and truthfulness,
he indeed is worthy of the yellow robe.

11.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알고
본질을 본질이 아니라 아는
그러한 자들은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
잘못된 생각의 영역을 헤매기에.

*Asāre sāramatino sāre cāsāradassino
Te sāraṃ nādhigacchanti micchāsaṅkappagocarā.*

Those who mistake the unessential to be essential
and the essential to be unessential,
dwelling in wrong thoughts,
never arrive at the essential.

12. 본질을 본질로 알고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 아니라 아는
그러한 이들은 본질에 이른다,
바른 생각의 영역에 머물기에.

*Sārañca sārato ñatvā, asārañca asārato
Te sāraṃ adhigacchanti sammāsaṅkappagocarā.*

Those who know the essential to be essential
and the unessential to be unessential,
dwelling in right thoughts,
do arrive at the essential.

13. 지붕이 허술한 집을
비가 뚫고 가듯이,
이같이 닳지 않은 마음을
욕망은 뚫고 간다.

*Yathā agāraṃ ducchannaṃ vuṭṭhī samativijjhati
Evaṃ abhāvitāṃ cittaṃ rāgo samativijjhati.*

Just as rain breaks through
an ill-thatched house,
so passion penetrates
an undeveloped mind.

14. 지붕이 잘 이어진 집을

비가 뚫지 못하듯

이같이 잘 닦은 마음을

욕망은 뚫지 못한다.

*Yathā agāraṃ suchannaṃ vuṭṭhī na samativijjhati
Evaṃ subhāvitaṃ cittaṃ rāgo na samativijjhati.*

Just as rain does not break through
a well-thatched house,
so passion never penetrates
a well-developed mind.

15. 살아서 슬프고 죽어서도 슬프다,
악업을 지은자 자는 양쪽에서 슬프다.
자신의 더러운 업을 바라보며
그는 슬프고 그는 괴롭다.

*Idha socati pecca socati pāpakārī ubhayattha socati
So socati so vihaññati disvā kammakiliṭṭhamattano.*

The evil-doer grieves here and hereafter;
he grieves in both the worlds.
He laments and is afflicted,
recollecting his own impure deeds.

16. 살아서 기쁘고 죽어서도 기쁘다,
선업을 지은 이는 양쪽에서 기쁘다.
자신의 깨끗한 업을 바라보며
그는 기쁘고 그는 참으로 기쁘다.

*Idha modati pecca modati katapuñño ubhayattha modati
So modati so pamodati disvā kammavisuddhim attano.*

The doer of good rejoices here and hereafter;
he rejoices in both the worlds.
He rejoices and exults,
recollecting his own pure deeds.

17. 살아서 괴롭고 죽어서도 괴롭다
악업을 지은 자는 양쪽에서 괴롭다.
'내가 지은 악업'이란 생각에 괴롭고
나쁜 곳에 가 태어나 더 괴롭다.

*Idha tappati pecca tappati pāpakārī ubhayattha tappati
Pāpaṃ me katan ti tappati bhiyyo tappati duggatiṃ gato.*

The evil-doer suffers here and hereafter;
he suffers in both the worlds.

The thought, "Evil have I done," torments him,
and he suffers even more when gone to realms of woe.

18. 살아서 기쁘고 죽어서도 기쁘다
공덕을 지은 이는 양쪽에서 기쁘다.
'내가 지은 공덕'이란 생각으로 기쁘고
행복한 곳에 가 태어나 더 기쁘다.

*Idha nandati pecca nandati katapuñño ubhayattha nandati
Puññaṃ me katan ti nandati bhiyyo nandati saggatim gato.*

The doer of good delights here and hereafter;
he delights in both the worlds.
The thought, "Good have I done," delights him,
and he delights even more when gone to realms of bliss.

19. 비록 많은 경전을 말하지만
게을러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마치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아서
수행하는 삶의 동참자가 아니다.

*Bahumpi ce sahitaṃ bhāsamāno na takkaro hoti naro pamatto
Gopova gāvo gaṇayaṃ paresaṃ na bhāgavā sāmāññaṣṣa hoti.*

Much though he recites the sacred texts,
but acts not accordingly, that heedless man
is like a cowherd who only counts the cows of others—
he does not partake of the blessings of the holy life.

20. 비록 적은 경전만을 말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는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앎으로 마음이 잘 해탈하여
이 생과 저 생에서 집착하지 않기에
수행하는 삶의 동참자이다.

*Appampi ce sahita bhāsamāno dhammassa hoti anudhammacārī
Rāgañca dosañca pahāya mohaṃ sammappajāno suvimuttacitto
Anupādiyāno idha vā huraṃ vā sa bhāgavā sāmaññaṃ hoti.*

Little though he recites the sacred texts,
but puts the Teaching into practice,
forsaking lust, hatred, and delusion,
with true wisdom and emancipated mind,
clinging to nothing of this or any other world—
he indeed partakes of the blessings of a holy life.

* 해탈은 완전한 자유를 뜻한다. 해서 삶과 죽음의 반복은 윤회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말한다.